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

[東亞日報] (1925년 8월28일~9월6일)



(註 : 이 논문은 古下가 하와이 범태평양 민족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후 20세기가 진전함에 따라 펼쳐질 세계의 대세와 우리나라의 장래에 관하여 심사숙고한 글이다. 이 논문은 근대 한국 명논설 66편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1967년 <新東亞>誌 신년호 별책부록으로 간행되었다)

1

우리는 朝鮮사람이다. 그러므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새가 樹林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到底히 朝鮮을 떠나서는 또한 朝鮮을 잊어버리고서는 一刻一秒라도 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이리하여 자거나 깨거나 듣거나 보거나, 잊으려 하여도 잊을 수 없는 것이 現下 우리 同胞의 心理的 狀態인가 한다. 그러면 朝鮮을 위하여 웃을 사람도 우리 同胞요, 또한 朝鮮을 위하여 땀 흘릴 사람도 우리 兄弟일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朝鮮 過去의 興替의 史實을 追究하며 또한 朝鮮이 世界 構成의 一部分인 以上에는, 現下의 世界와 朝鮮과의 影響 關係의 現狀을 그대로 冷靜하고 嚴肅하게 觀察하여서 朝鮮民族의 當來의 運路를 開拓 努力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緊且切한 問題일 것이다.

2

勿論 朝鮮의 將來를 論究하는데 있어서는 外部的으로 重要的인 影響 波動이 關係를 가진 世界的 大勢도 要緊한 材料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욱 重且大한 關係를 包含한 것은 內部的으로 朝鮮民族 自體의 過去 歷史上 興替盛衰의 因果關係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過去 四千年間 興替盛衰의 史實을 概括적으로 一論하려고 하는 바이다. 勿論 過去의 朝鮮에는 表面的으로 觀察하면 檀君大皇祖의 登極肇判하신 以後로 箕子·箕準의 朝鮮도 있었고 衛滿의 朝鮮도 있었고 또한 辰韓, 弁

韓, 馬韓과 高句麗, 新羅, 百濟의 分裂된 朝鮮도 있었다. 이리하여 이를 統一組織하였던 新羅의 朝鮮과 또한 이를 統一繼承하여 온 高麗의 朝鮮과 李朝의 朝鮮이 있었던 것도 歷史的 事實이었다.

3

그래서 四千年을 通하여 歷史的 變遷과 政治的 興替가 反覆無常하였다. 그러나 언제든지 朝鮮人의 朝鮮이라는 觀念은 없어서 본 일이 없었으며, 또한 實體的으로 想像할 수도 없었던 것은 嚴肅한 史實이다. 換言하면 三國의 分裂은 그 當時 政治 當路者의 分裂이며 新羅·高麗·李朝의 滅亡도 또한 그 當時의 王位交代의 興亡變遷에 不過하였던 것은 昭昭한 史實이 아닌가. 어째 그러나 하면, 歷代 王朝의 變遷 興替에 따라서 萬一 朝鮮이 滅亡하였다 하면, 어찌하여 四千年來로 朝鮮民族의 文化가 依然히 保全할 수 있었으며, 또한 朝鮮民族의 血統이 儼然히 存在할 수가 있는가. 更히 一例를 擧하면, 美國의 民主·共和 兩黨이 競爭 交替하여 美國의 政權을 接受相傳하는 동안에 或은 共和黨이 勝利를 得하며 或은 民主黨이 失敗에 歸하여도 누구든지 決코 美國 自體의 動搖興替로는 보지 아니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意味에서 歷代 王朝 自體의 政治的 興亡에 不過한 것이고 決코 朝鮮民族 自體의 全體的 滅亡, 根本的 滅亡을 意味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에서 굳게 斷言하는 바이다.

4

우리는 前欄에서 歷代 王朝의 興廢는 政權爭鬪의 手段方法에 不過하였고, 朝鮮民族 全體의 文化 및 生活에 들어서는 直接의 變化와 影響이 없었던 것을 說破하였다. 이것은 歷代 王朝가 恒常 民族生活의 土臺에서, 또는 民衆文化의 發展에서 政權을 運用하며 經綸을 施設하는 것보다, 王家 自體의 發展 또는 政權 維持의 目標에서 政治的 理想이 局限되었던 事實이었다. 그러므로 歷代 王朝의 興廢에 對하여 그 當時 王朝의 特殊的 恩寵을 받는 特權階級을 除하여 놓고는 一般的 民衆은 그다지 直接으로 生活上 利害의 感受性이 稀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떤 王朝에 對하여는 그 暴虐無道의 政治的 變革을 期待하였던 적도 없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歷代의 事實에도 特히 吾人의 注意를 促하는 것은 過去 無常한 政治的 變革에 언제든지 異民族의 勢力으로 오랜 동안 干涉 或은 統治하는 것은 絶對적으로 拒絶하여온 사실이다. 이것은 元來부터 朝鮮民族의 血統이 極히 純粹하고 또한 言語와 禮俗이 異民族의 그것에 比하여 恒常 卓越優秀하였던 關係인가 한다. 回顧하여 보라. 李世民의 精銳로도, 隋楊廣의 強暴로도, 或은 安市城의 隻影이 되며 或은 淸川江의 孤魂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5

그러면 最近의 政治變革의 史實은 如何한가. 半島의 政權이 李朝에 歸한 以後 壬辰·丙子의 兩大戰役이 있었다. 이리하여 民力의 疲弊가 極度에 達하였었다. 그러나 이를 改革濟度할 巨腕의 政治家가 없었던 것도 事實이어나와 世界의 大勢는 帝國主義의 勃興과 東洋航路의 發見으로 因하여 西力東漸의 大勢를 馴致하였었다. 이리하여 隱士國의 朝鮮은 漸次로 世界的 朝鮮이 되어가며 閉鎖하였던 半島는 猝地에 列強의 角逐場으로 化하려 하는 形勢가 顯著하였었다. 이러한 氣運을 看破하고 四千年來의 新機軸을 展開하여 一大變革을 試하려 하였던 것이 距今 三十年前의 甲申政變이었다. 그러나 時運이 不至한지라 우리의 先覺 金玉均 一派는 千秋의 恨을 抱하고 畢竟 殊邦異域에서 不歸의 客이 된 것은 아직도 우리의 記憶이 尙新치 아니한가. 그러나 이것도 또한 極少數의 覺醒으로써 四千年來의 굳어온 民族 全體의 思想을 根本적으로 一時에 改革하려 하였던 것이니, 어찌 無理가 아니라. 爾後의 形勢는 如何하였던가. 繼續된 李朝의 虐政과 澎湃한 西勢의 東漸은, 或은 宗教로, 或은 商船으로 滔天의 勢를 示하였다. 이리하여 東學黨을 中心으로 한 民衆的 叛亂이 起하였었다. 그러나 이 또한 鎖國·攘夷의 舊思想에서 그 運動의 胚胎가 生한 結果 한갓 日淸戰役의 大事端을 惹起하였을 뿐이오, 民衆 自體에 對하여는 何等의 收穫이 없었던 것이 事實이었다. 이 곧 甲午東亂이 아닌가.

6

그러면 그 後 形勢는 如何하였는가. 累千年間 被活的 地位에서 服從과 壓制에 굳어온 民族의 頭腦는 新文化에 對한 覺醒이 遲鈍할 뿐 아니라, 所謂 導率儀範의 地位에 處한 貴族階級은 私利와 黨爭이 奔汨沈溺한 結果 四千年來의 祖傳父授하여 온 政治的 權力은 日露戰役의 終焉으로 因하여 異民族의 手中에 移轉하게 되었다. 이 곧 庚戌의 合併이 아닌가. 그러나 이에서 若寒膽이 된 朝鮮民衆은 更히 現代의 文明의 對하여 驚異의 眼을 開한 同時에 民族的意識을 또다시 發見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 곧 1919年 3·1運動의 發端인가 한다.

7

적어도 一九一九年의 三·一運動은 朝鮮民族에 對하여 四千年 以來 輪回 反覆하여 오던 東洋의 生活樣式을 精神上으로나 文化上으로나 政治上으로나, 根本적으로 民衆의 으로, 破壞 建設하려 하는 內在的 生命의 爆發이었다. 그러므로 朝鮮歷史에 있어서 처음 보는 運動인만큼 그 意義가 深長하고 그 關係와 影響이 重且大한 것도 勿論일 것이다. 어찌 그러나 하면 過去 幾千年間의 歷史上으로만 表現된 幾多의 改革과 戰

亂이 있었으나, 그 內容과 實質에 있어서는 少數階級の 政權 爭奪의 變革이 아니면 尊周攘夷의 思想에서 胚胎되며 出發하였던 것은 不誣할 史實이었다. 그러나 最近 三·一運動의 一件에 至하여는 그 內容과 形式을 一變하여 적어도 思想의 根抵가 世界의 大輿論인 民族的 自尊과 人類的 共榮의 正義 人道의 觀念下에서 全國的으로도 民衆的으로 刀劍裡 鐵鎖間에서도 毅然히 立하며 泰然히 動하였던 것은 어찌 朝鮮民族의 革新運動 史上에 一大奇蹟이 아니며 一大偉觀이 아니라.

8

그러면 이러한 奇蹟 偉觀을 演出케 한 그 原因이 那邊에 在할까. 이곳 一論을 試코자 하는 바이다. 勿論 朝鮮의 革新運動은 그 起源을 甲申政亂에서 求하는 것이 正當한 經路일 것이다. 어찌 그러나 하면 甲申政亂의 思想的 根抵가 在來의 政權與奪과 尊周攘夷의 思想과는 그 範疇를 달리하여 적어도 現代文明을 肯定하여서 民族的 福利를 企圖하는 點에서 起因된 까닭이라 한다. 勿論 그 運動의 土臺가 極少數階級の 覺醒에 出發하였으므로, 桑榆의 功을 收치 못한 것은 千秋의 恨事라 할지라도, 그 開國尊民의 大理想에 至하여는 岩壁으로부터 落下된 物體가 그 目的地에 達하기 前까지는 沮止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爾來 三十餘年을 通하여 一波가 萬波가 되며, 私語가 輿論이 되며, 或은 獨立協會가 되며, 或은 自強會가 되며, 或은 大韓協會가 되며, 或은 學校와 學會가 되어 一進一退 一縮一張의 無數한 變動과 許多한 試鍊을 經過한 것이 過去의 事實이었다. 그러나 더욱이 朝鮮民族의 急激한 衝動을 起케 하고 加速의 覺醒을 促進케 하였던 것은 庚戌의 大變이다.

9

이리하여 朝鮮民族은 會心反省의 機會를 作하였으며, 또한 舊文化의 反抗을 試하였었다. 村塾이 學校로 變하며, 道院님이 生徒로 變하며, 爾來 十年間을 社會的 細胞인 個性의 變化를 惹起하게 되었다. 또한 同時에 寺內總督의 舊文化群의 武力的 反抗思想의 轉換策으로 盛히 同化主義의 新式教育을 勵行하였었다. 그러나 寺內的 無理한 同化政策은 四千年동안의 訓練된 民族的 精神을 破壞하기에 너무나 微弱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民族的 感情을 刺激하는데 있어서 그 功效가 莫大하였던 것을 이에 忌憚 없이 斷言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그 所謂 同化政策은 도리어 民族意識을 喚起하는 一方으로 一般的으로 普及된 新式教育은 新文明의 肯定과 民衆의 覺醒을 非常하게 促進하였었다. 그러면 無數한 細胞의 變化가 起하는 同時에 全體의 變動이 生하는 것과 같이 社會組織의 土臺가 되는 許多한 個性이 根本的으로 改革 覺醒이 되는 同時에 어찌 全體 社會의 大變革이 없으랴. 이 곧 三·一運動의 起源이다. 或은 三·一運

動을 美國 宣教師의 教唆라고도 하며 或은 天道教一派의 煽動이라 하나, 이것은 朝鮮民族의 精神과 또한 朝鮮社會의 事情을 沒覺한 短見者流의 語에 不過한 것이요, 그 實은 朝鮮民族의 內在的 生命이 世界的 新文化에 接觸되어 爆發된 一大 覺醒의 소리인 것을 斷言하는 바이다.

10

過去 三十年間을 通觀하면 民衆的 運動을 三期로 分할 수 있으니, 第一期는 宗教的 排他運動의 甲午의 東亂이요, 第二期는 政治的 勤王思想의 義兵運動이요, 第三期는 民族自由의 三·一運動이다. 그러나 宗教的 排他運動과 政治的 勤王思想이 實際上으로 失敗에 歸하였을 뿐만아니라 思想上으로도 民衆의 輿論을 作치 못하고 繼續的 勝利를 得치 못한 것은 그 政治的 理想과 論理的 價値가 到底히 現代의 新思潮에 對照하여 그 思想的 根柢와 土臺가 너무도 薄弱하고 背馳되었던 까닭이 아닌가 한다.

11

그러나 民族 自由의 三·一運動만은 前欄에서 紹介한 바와 같이 그 動機와 思想이 內的으로 民族的 福利를 企圖하는 점에서 外的으로 世界的 思潮에 順應하는 점에서 設令 一時的으로 完璧의 功을 收치 못하였다 할지라도 朝鮮民族의 良心的 發動으로 보아서 또한 世界人類의 思想上 共鳴으로 보아서 確實히 道德的 勝利인 것은 不誣할 事實이다. 그러면 現下의 情態는 如何한가. 過去를 回顧하면 朝鮮社會가 甲申의 革新運動을 筆頭로 하여 十年만큼 社會的 大變動을 惹起케 하는 것은 本來의 常例이다. 試思하여 보라. 甲申政亂에서 甲午東亂까지, 甲午東亂에서 甲辰·乙巳의 義舉에서 庚戌의 合邦까지, 庚戌의 合邦에서 己未의 三·一運動까지, 마치 豫定的 行動과 같이 社會的 變動이 發生된 것이 昭然한 事實이 아니냐. 이것은 決코 異常야릇한 運命의 魔術이 아니라 現代의 어느 社會와 어느 民族을 勿論하고 舊時代에서 新時代에로 趨移過渡하는 途程에 있어서 恒見例有한 史實인가 한다. 보라, 일본의 維新時代에 尊王攘夷의 論爭과 西南衝突의 戰亂이 어찌하여 생겼으며, 美國에는 獨立戰爭 後에도 왜 南北戰爭이 있었으며 現下의 中國에 어찌하여 團匪의 亂과 革命의 戰과 奉·直의 爭이 繼續 不絶하는가를. 그 理由는 舊勢力의 破壞와 新文化 樹立의 接觸點에 處한 社會의 不可避할 現狀인가 한다.

12

하물며 半萬年 歷史的 背景을 가지고 東洋 全局의 樞要地에 處한, 아니 歐亞美 三大陸의 世界 道路의 中心點에 있는 朝鮮民族의 社會가 政治上으로나, 文化上으로나,

思想上으로나, 經濟上으로나, 時時刻刻으로 外勢의 刺戟을 받고 內部的 衝動을 惹起함이라. 元來 朝鮮民族에게는 固有 特殊한 先入의 文化가 있었다. 이리하여 한참 동안 新舊取舍의 苦悶이 있었던 것도 事實이었다. 그러므로 新舊取舍의 煩悶時代에는 自主的 變革보다 他力的 變動이 頻數하였었다. 이 곧 日淸·日露의 兩大戰役이 그것이며 庚戌의 大變도 그것이다. 그러나 朝鮮民族은 一九一九年의 三·一運動을 新機軸으로 하여 民衆的으로 새 기운을 땀고 새빛을 보았다. 그 表證으로, 첫째는 教育的 覺醒이요 둘째는 經濟的 意識이다. 보라. 三·一運動 以後로 아무리 僻鄉窮村의 農老炊 이라 할지라도 子弟教育에 對한 渴仰追求의 熱이 如何히 亢進하였으며, 또한 在來의 歷史的 感情으로만 訓練되었던 民族運動은, 그 內容을 一變하여 經濟的 意識 곧 生活의 土臺 위에서 그 根抵를 發見하게 된 것은 確實히 一大 進步인 것을 斷言하는 바이다. 이에서 過去 庚戌事變 以來의 十年間 普通教育의 普及으로 三·一事件의 自主的 大變動을 惹起하였다 하면 이로부터 三·四年을 不過하여 또한 社會組織의 一大 變動이 發生될 것도 先知卓見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豫測할 바가 아닌가. 그 理由는 民衆의 知識程度가 더욱 進步될수록 더욱 普及될수록 社會組織의 變化가 더욱 頻數하여 갈 것은 進化의 法則인 까닭이다.

13

吾人은 前欄에서 朝鮮民族의 內部的 進化로 因한 社會組織의 自然的 變化를 論하였다. 그러나 朝鮮半島가 世界構成의 一部分이며, 또한 朝鮮民族이 人類 全體의 一部分인 以上에는 世界大勢의 趨移가 直接 間接으로 朝鮮社會에 波及이 될 것은 勿論이며, 따라서 朝鮮社會의 變動도 世界大勢의 趨移에 莫大한 影響이 될 것도 想像할 수 있다. 回顧컨대 朝鮮問題로 因하여 發端한 西南戰爭은 日本政界의 變革을 如何히 惹起하였으며 또한 朝鮮問題로 因하여 突發된 日淸·日露의 兩大戰役이 東洋全體의 風雲과 國際政局의 波瀾을 如何히 惹起하였는가. 이리하여 近因에 있어서는 淸朝의 敗亡을 招하였고, 遠因에 있어서는 슬라브族의 受傷로 因하여 歐洲大戰의 發端을 作치 아니하였는가.

14

最近에 있어서도 美大統領이 提唱한 民族自決問題가 如何히 朝鮮民族의 新興氣分을 助長하였으며, 또한 이로 因하여 日本政界의 視聽을 如何히 聳動케 하였는가. 이로 보면 朝鮮問題는 東洋의 難關이며 世界의 論點인 것은 勿論일 것이다. 吾人은 이에서 更히 世界大勢의 趨移上으로 觀察한 朝鮮問題의 經過를 먼저 一論코자 하는 바이다. 元來 朝鮮問題는 前欄에서 詳述한 바와 같이 朝鮮民族 自體가 現代文明에 對한

理解와 覺醒이 遲鈍한 點에서 無慘한 犧牲을 當하게 된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過去의 形勢를 追求하여 보면 우리 民族 自體의 責任뿐만 아닌 것도 想像할 수가 있다. 試思하여보라. 東洋 全體의 地理的 關係로 보아서 朝鮮半島는 中·日 兩國 間에 介在한 中立地帶가 아니냐. 그러므로 大陸으로부터 輸入된 歐洲의 文明은 中國 固有文化의 抵抗으로 因하여 傳播의 力이 薄弱하였고, 海洋으로부터 流出된 美大陸의 文化도 日本의 維新大業을 促進하였을 뿐이 아닌가. 이리하여 그 中間에 介在한 우리 民族은 徒然히 鎖國의 長夢에 處하였던 것이다. 萬一 그 當時의 日本의 爲政家로 하여금 東洋 全局의 百年大計에 着眼하고 또한 先進者의 責任을 自覺하여서 誠心 誠意로 東洋 各民族의 共存共榮을 圖하게 되었던들 결코 朝鮮과 中國에 今日과 같은 無慘한 現狀이 없을 뿐만아니라 日本自體도 今日과 같은 世界的 孤立의 危地에 立치 아니하였을 것은 勿論일 것이다.

15

그러면 爾來 日本의 東洋 全局에 對한 態度와 政策은 如何하였던가. 두말할 것 없이 日·英同盟을 國際外交의 中樞로 하여 東洋平和의 保障이라는 美名下에서 文化上으로 恩寵이 殊深한 朝鮮의 合併을 斷行하고, 一步를 進하여 英國과의 協調下에서 中國의 利權을 雙分壟斷하려 하던 것이 過去의 政策上 大本이 아니었던가. 이리하여 袖手酸目이 되어있던 美國으로 하여금 機會均等과 門戶開放主義의 提唱을 하게 되지 아니하였더냐. 萬一 現下 美國의 排日의 感情을 解剖하여 본다면 深刻한 印象과 動機는 그 當時 日本의 傍若無人한 侵略政策이 그 累를 及치 아니하였는가 한다. 勿論 그 當時의 侵略的 帝國主義는 日本에만 限하였던 것은 아니다. 十九世紀로부터 二十世紀 劈頭에 이르기까지는 果然 侵略的 帝國主義의 全盛時代이었던 것도 不誣할 史實이었다. 아프리카 大陸에 있어서 列強의 任意的 分割이 斷行되었었고, 太平洋에 있어서 群島의 爭奪併呑이 極烈하였었고, 露西亞에 있어서는 핀란드合併을 斷行하던 時期가 아니었던가. 이로 보면 朝鮮問題도 그 當時 世界大勢의 犧牲이 되었던 것도 一面의 觀察일 것이다. 그러나 日本의 立地에 있어서 東洋 全局의 百年大計를 爲하여 歷史 文化의 特殊的 關係를 爲하여, 또한 到來하는 世界的 人類問題를 爲하여, 朝鮮問題의 犧牲이 果然 得策이었을까 할 뿐이다.

16

十九世紀 劈頭로부터 二十世紀 劈頭에 至하기까지 約 一世紀間에 亘하여 激烈 辛辣 하던 列強의 侵略的 帝國主義는 乾坤一擲의 歐洲大戰으로 因하여 急轉의 破綻이 生하였고, 또한 最後의 末路를 告하게 되었다. 大戰의 責任에 對하여 聯合國側과 同盟

國側의 是非의 論爭이 不一하였던 것도 事實이었다. 그러나 萬一 春秋에 無義戰이라는 筆法으로 嚴正한 批判을 내린다 하면 그 實은 暴力으로 暴力을 對峙하는 데 不過하였던 것이 大戰의 真相일 것이다. 如何間 이와 같은 不合理한 殺戮的 戰爭이 四·五年을 繼續한 結果 幾百億의 戰費와 累百萬의 生命을 水泡와 같이, 草芥와 같이 雲消霧散하여버린 歐洲의 文明은 最後의 破綻을 告하게 된 것이 過去의 事實이 아니었던가.

17

이에서 世界의 人類는 煩悶·悔悟·憂愁의 機會를 作하였었다. 이리하여 一面에 있어서는 暴露의 崩壞로 因하여 經濟적으로 레닌의 社會主義가 實現되었고, 他面에 있어서는 強獨의 屈從으로부터 人道的 見地에서 일손의 民族自決主義가 提唱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와 같은 急激한 變化는 歷史上 實例로 보아서 依例히 反動的 氣分을 惹起하는 것이 常事이었다. 이것은 物理學上으로도 實證할 수가 있다. 急轉直下하는 物體가 도리어 空氣의 波動을 受하여 最後의 搖動을 惹起하는 것과 何異가 有하라. 이른바 世界改造의 國際聯盟의 最後의 龜裂이 生한 것도 事實이며, 또한 新興의 赤露를 敵對하기 爲하여 露領의 西伯利亞方面에서 聯合의 軍隊가 出動하였던 것도 事實이 아닌가. 그러나 世界人類의 大輿論·大理想에 基礎한 主義와 實現은 決코 時間的 反動으로 沮止할 수 없으며, 또한 武力的 制裁로 抑壓할 수 없는 것이 歷代의 史實이다. 이것은 지나간 十八世紀의 佛國의 革命史와 美國의 獨立戰이 吾人에게 昭昭한 實證을 例示한 바가 아닌가. 戰後의 四·五年 동안에 殘燭復明의 反動的 氣勢의 擡頭를 不拘하고 人類의 大理想에 至하여는 조금도 沮止할 바를 모르고 風船의 順路와 같이 進展하여 가는 것이 現下의 大勢가 아닌가.

18

보라, 民族運動에 있어서는 巴爾幹半島의 多少諸國의 獨立을 비롯하여 波蘭의 獨立, 愛蘭의 分立이 繼續 完成되었고 또한 印度의 非協同運動과 比島의 獨立運動도 비록 運動의 途程에 있으나 그 氣運과 形勢가 갈수록 猛烈하고 擴大되는 것은 不誣할 事實이며, 勞動運動에 있어서도 大戰亂을 一經한 後 赤露의 完成은 勿論이어나와 國際적으로나 國內적으로 勞動問題가 中心의 論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實際적으로 各國의 政界가 漸次로 勞動問題를 中心으로 하여 回轉할 兆徵이 顯著한 것은 現下의 大勢가 아닌가. 그러므로 現下의 反動的 氣分은 各國政界를 通하여 特權階級の 因襲的 惰力의 最後 發作에 不過한 것이요 決코 世界大衆의 理想과 輿論이 아닌 것을 이에서 斷言하는 바이다.

19

萬一 歐洲의 戰亂으로 하여금 世界人類에게 對하여 寄贈한 바가 있다 하면 이것은 侵略的 軍國主義 崩壞일 것이다. 이로 因하여 軍國主義의 雙壁인 暴獨 強露의 崩壞를 完成한 것이 事實이었다. 그러면 軍國主義의 新參見習으로 東洋方面에 있어서 이르는 곳마다 爪牙를 現露하던 日本의 形勢는 如何하였던가. 歐洲大戰 當時로부터 巴里講和會議의 前後에 이르기까지는, 實로 日本의 全盛時代이며 또한 得意의 秋이었다. 內政에 있어서는 戰時貿易의 盛況으로 因하여 輸入된 金貨는 넉넉히 積年の 舊債를 報償하기에 그 餘裕가 綽綽하였고, 外交에 있어서도 聯合 同盟 兩側의 念不及他的 機會에 處하여 東洋方面의 勢力扶植에 自由自在한 活動을 得하였었던 것이 事實이었다. 하물며 戰勝國의 一員으로 五大強國의 班列에 參加하여 從來로 東洋方面에만 局限되었던 實際的 勢力이 猝地에 歐洲政局에까지 有力한 發言權을 得하게 된 것은, 極東의 一小國으로 그 光榮과 得意를 누구나 想像할 바가 아니냐.

20

그러나 興盡悲來하고 樂極生哀는 人世의 常事이다. 大戰當時의 二十一個條의 對中外交는 다만 中國人으로 하여금 切齒의 恨을 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世界 列強의 猜忌 嫉視의 焦點이 되었던 것이 아니냐. 또한 西伯利亞 出兵은 다만 莫大한 國費의 消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日本의 軍國主義의 宣傳을 제물에 完成하였던 것이 아니냐. 이리하여 英·美의 提携로 華盛頓會議가 開催되었고, 華盛頓會議의 結果로 一面에 있어서는 國際外交의 金科玉條이던 日·英同盟이 破壞되었으며, 他面에 있어서는 軍費制限으로 軍國主義의 手足을 切斷하게 된 것이 아닌가. 게다가 空前의 大震災는 日本으로 하여금 極度の 致命傷을 與하였다. 近百億의 財貨와 幾十萬의 生命이 焦土의 烏有에 歸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에 對하여 表面으로 同情을 宣하고, 裏面으로 微笑를 發하였던 것이 果然 그 누구이었던가. 震災後 半個年을 不過하여 峻烈한 排日法案을 通過하고 繼續하여 海軍大練習의 高壓的 示威運動을 演出한 것은 平素부터 極東方面에 虎視眈眈하고 있던 美國이 아니냐. 過去의 全盛을 回顧하고 現下의 孤危를 想起할 時에 果然 日本國民의 울분이 如何하였을까.

21

그러나 日本의 內政은 如何한가. 在來로 軍國主義를 唯一한 信條로 信奉하는 日本社會는 世界的으로 軍國主義가 崩壞되는 同時에 一大 恐慌이 起하였으며 一大 颱風이 襲하였었다. 하물며 軍閥派의 對中外交와 露領出兵의 連次 失敗로 因하여 國威 國財를 아울러 世界的으로 損失케 한 兩大事件에 對하여 積年憤抑되었던 一般社會에는

反抗의 氣勢가 日熾하고 또한 資本主義의 勃興으로 因하여 社會主義의 輸入이 加速
度로 增加되어가는 것도 事實이다. 이리하여 中樞를 잃은 日本의 思想界는 日을 逐
하여 惡化 激化해 가는 것이 現下의 情態가 아닌가. 이에서 思想的 緩和策으로 '普選
'의 斷行이 된 것이다. 그러나 普選의 斷行으로 因하여 果然 어느 程度까지 社會의
安定을 得할 것인가, 이 곧 吾人의 一括目하는 바이며, 또한 普選의 實施後 日本의
政界에 赤露의 社會主義的 色彩가 濃厚하여질 것인가, 或은 美國의 資本主義가 그대
로 適用될 것인가, 이 곧 日本의 運命을 決定할 分岐點이 될 것이다. 如何間 이로부터
三, 四年을 不過하여 政治的으로나 社會的으로나 一大變革이 생길 것은 吾人의
想像하는 바가 아닌가.

22

世界大勢의 潮流는 確實히 地中海에서 大西洋으로, 大西洋에서 太平洋方面으로 移動
하여 오는 것이 過去의 史乘에 照하여 昭昭歷歷한 事實이다. 萬一 十九世紀를 佛蘭
西文化의 擴充時期라고 하면, 二十世紀는 赤露思想의 發展時代라는 것이 正當한 見
解일 것이다. 資本主義의 模範인 美國과 社會主義의 代表的인 赤露가 太平洋을 隔하
여 兩兩相對하여 勃興되는 것은 果然 不遠한 將來에 그 무엇을 暗示하고 있는가. 協
調할까. 衝突할까. 이 곧 太平洋上의 一沫의 疑雲이 되어 있는 것은 不誣할 事實이
다. 世界大勢의 運命이 이에서 決定될 것이며 또한 人類의 文化上 總決算이 이에서
勘定될 것은 想像키 不難할 바가 아닌가.

23

그 中間에 處하여 第一 딱하고 애처로운 경우는 日本의 現狀이다. 두말할 것 없이 日
本은 國際的 中産階級이다. 巨大한 資本을 抱擁한 美國과 競爭 發展하는 것도 實力
이 不許하는 바이며, 그렇다고 赤裸裸하게 世界的으로 난봉行世를 하는 赤露와 提携
協調하는 것도 一層 危險을 感하는 바가 아닌가. 이에서 左顧右眄 悔悟煩悶하는 것
이 日本 現下의 情態인가 한다. 하물며 一面에 있어서는 美國의 資本的 帝國主義는
日을 逐하고 年을 隨하여, 或은 移民問題로 或은 中國問題로 反目的 度가 加하며 衝
突의 機가 促進되는 것이 事實이며, 他面에 있어서는 日·露條約이 成立된 以來 敬遠
的 態度로 外交的 辭令이 互相交換되나, 立國의 基礎와 主義가 根本的으로 不相容할
關係가 있는 以上에는 衝突의 危險性은 또한 不避할 形勢가 아닌가. 이로 보면 思想
的으로 資本的으로 左右挾攻을 當하고 있는 日本의 形勢는 實로 危卵의 感이 不無하
다.

24

그러면 歐洲列強의 東洋政局에 對한 態度는 如何한가. 무어라고 하든지 歐洲의 中樞 勢力은 獨·佛兩國일 것이다. 兩國의 歷代的 感情과 戰後의 形勢가 相互牽制와 現狀 維持에 汲汲한 以上에는 東洋方面에 對하여 어느 時期까지는 闊大進取의 活動을 取치 못할 것은 피할 수 없는 情態일 것이다. 그러나 英國에 至하여는 特殊的 立場에 處하여 獨·佛 兩國에 比하여 戰後의 瘡痍가 그다지 甚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항상 傳統的 漸進政策으로 東洋方面에 對하여 不斷한 注意와 視監을 行하는 것이 昭然한 事實이 아닌가. 大戰後에 바로 美國과 提携하여 日·英同盟을 破壞하는 동시에 美國의 新興氣銳의 勢力을 아무쪼록 太平洋方面에 集注케 하여, 日本의 衝突을 促한 後, 途 途이 漁夫의 利를 取하려 하는 것이 英國의 老猾한 極東政策이 아닌가. 이것은 太平 洋上의 風雲을 豫期하여 新嘉坡 軍港建設의 一件으로만 보아서도 個中의 消息을 窺 할 것이다.

25

이렇게 觀來하면 美·露 衝突의 途程에 있어서 日·美 衝突이 前提가 될 것은 想像기 不難하다. 그러면 果然 衝突의 導化線은 那邊에 在할까. 이 곧 中國問題이다. 萬一 巴爾幹半島가 過去 歐洲의 謎訛라 하면 二十世紀의 中國問題는 確實히 東洋政局의 一大危險일 것이다. 그러나 巴爾 幹半島問題는 歐洲大戰으로 因하여 不完全하나마 그 解決을 告하였거니와 中國問題는 아직까지도 疑問이며 危險하다. 如何間 中國은 一大 美人이다. 그러므로 世界列強의 懷腸의 戀과 秋波의 情을 받는 것이다. 元來 美人 自體가 主動的 能力이 없는만큼 이를 玩弄阿隨하려는 淫夫 蕩子도 많을 것은 事實이다. 이리하여 嫉妬도 생기며 鬪爭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中國의 無限한 富源과 許多한 利權은 列強의 好投資處며 大發展地이다. 이리하여 英國의 秋波가 되며 日本의 威脅이 되며 美國의 垂涎이 되며 赤露의 援助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中國의 現狀은 如何한가. 아직도 民衆의 覺醒이 徹底치 못한 現下에 있어서 張·憑兩派의 勢力接觸點에 立한 段祺瑞政府는 實로 風燈의 感이 不無하다. 그러나 民衆에 따라서 自主排外의 運動이 날로 熾烈하여 갈 것은 確的한 事實일 것이다. 今 番의 上海事件은 그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며 日英의 排斥에 對하여 美國의 同情과 露國의 暗助는 벌써부터 列國의 縱橫暗鬪의 序幕이 始作된 것이 아닌가. 이로부터 三·四年을 經過하면 赤露의 內部的 實力이 充溢하여 外部的 活動이 活潑할 때에, 美國海軍의 擴張計劃이 完成될 때에, 英國의 軍港計劃이 確立될 때에, 中國政界가 動搖될 때에, 中國方面의 一點暗雲이 太平洋上의 風雨를 大作케 할 것을 그 杼가 保證 하라.

吾人は 以上에서 朝鮮内部의 社會的 變革과 世界大勢의 趨移와 東洋政局의 危機로 보아서 四·五年을 不過하여 太平洋을 中心으로 한 世界的 風雲이 惹起될 것을 論斷하였다. 勿論 主觀的 速斷일지는 알 수가 없으나 萬一 過去の 歷史가 現下大勢의 産母며 未來의 大勢가 또한 現在 事實의 播種이라 하면 결코 牽強附會의 空論이 아니 될 것을 確信하는 바이다. 그러나 다만 論點은 時間問題일 것이다. 어찌하여 複雜多端한 世界問題가 何時 四~五年을 前後로하여 惹起될 것인가 하는 點일 것이다. 그러나 吾人이 四~五年 前後를 豫言하는 것도 決코 荒唐無稽한 空想에서 立論한 것은 아니다. 대개 人間社會의 十年이라하는 時期는 個人으로나 國家로서나 一大計劃을 立하여 準備와 組織을 完成하는데 있어서 比較的 最要한 長期이다. 此러므로 越王 勾踐은 十年의 成聚로 因하여 會稽의 恥를 雪하였고 宜祖의 李文成은 外敵의 侵入을 遠慮하여 十年의 義兵을 主張치 아니하였던가.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一九一九年의 世界的 大戰의 終熄으로 一九二九年까지 곧 此로부터 四·五年만 經過하면 十年의 滿期가 될 것은 勿論이다. 그러면 大戰의 終熄으로부터 그 동안 十年間에 그 社會 그 民族의 努力 如何에 依하여는, 疲弊된 國力도 復活될 것이며 消沈된 元氣도 振作될 것은 勿論일 것이다. 하물며 現下의 交通機關의 發達과 思想傳播의 影響이 過去の 時代에 比하여 加一層 迅速해지고 敏活하여 時刻으로 急轉 激化하는 것이 現代의 特色이 됨에랴.

그러면 이와 같은 不遠한 將來의 世界大勢의 變動을 豫想하고 또한 東洋政局의 禍亂을 推斷할 때에 가장 特殊한 事情을 가진 日本과 朝鮮의 關係는 如何히 進展될 것인가. 이 곧 吾人의 中夜耿耿에 長 太息하는 바다. 過去の 日本이 白種의 英國과 提携하여 東洋의 同色民族을 或은 壓迫 或은 威脅함으로써 能事를 作하였던 것이 現下 東洋政局의 禍機가 아닌가. 萬一 過去の 日本으로 하여금 當初부터 東洋各民族의 共存共榮의 遠大한 計劃을 策해 하였던들, 결코 現下의 日本自體가 孤立의 危機에 處치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歐洲大戰으로 因하여 破綻된 殺伐的 文明과 疲弊된 白色民族을 誘導啓發하여 世界改造의 人類의 大偉業을 東洋民族의 導率下에서 完成할 것이 아닌가. 이 어찌 千古의 恨事가 아니라. 그러나 過去는 過去인지라 追窮할 必要가 없거니와, 現下에 있어서 日本人士의 感想이 如何하며 所見이 如何한지 吾人의 切聞코자 하는 바이다. 적어도 朝鮮問題의 解決은 東洋 全體問題 解決의 前提가 되며 또한 要件이 될 것은 勿論이다. 왜 그러나 하면 가장 民族的 關係가 密接하고 文化的 恩澤이 莫甚한 朝鮮民族을 蹂 壓迫하는 것은 아무리 日本民族의 全體意思가 아니요 秀

吉·寺內輩의 軍閥一派의 背恩沒義의 行動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半萬年 歷史的 背景과 二千萬 民衆의 聰明을 가진 朝鮮民族으로서는 徹骨의 恨이 될 것은 勿論이 아닌가. 특하면 日本人士中에는 이러한 말을 한다. 李朝虐政下에서 지내던 朝鮮民族이 總督政治의 生命 財産의 安全保障으로 因하여 滿足할 것은 勿論이라 한다. 이것이 果然 日本人士의 朝鮮民族에 對한 心理的 觀察이라 하면 吾人은 寧히 그 愚痴를 憫憐히 여길 뿐이다. 現代의 朝鮮人이 過去의 朝鮮人이 아닌 것도 勿論이거니와, 設令 李朝의 虐政이 現代에 再現된다 할지라도 朝鮮人은 그 改革을 絶叫할 것이 아닌가. 하물며 總督政治와 李朝政治가 民族的 感情에 있어서 그 根底가 懸殊함이라. 이것은 現下의 日本人民이 過去의 專制政治에 對하여 反抗하던 經路를 回憶하면 反省할 바가 아닌가. 둘째는 日本의 爲政家로 하여금 朝鮮問題 云謂할 때는 반드시 國境警備問題와 師團增設의 必要를 力說하는 것이다. 果然 君等의 所見과 같다 하면 어찌하여 暴露·強獨이 一戰의 破滅에 不堪하였던가. 如何間 朝鮮問題를 그대로 두고는 中·日親善도 空念佛이며 東洋平和도 口頭禪에 不過할 것을 斷言하는 바이다. 적어도 二千萬 民衆의 銳利한 心 刀이 日本의 弱處急所를 隨하여 機會대로 現露될 것은 現下의 情態가 아닌가. 이 곧 日本人士의 反省을 促하는 바이다.

28

그러면 우리 民族의 世界大勢에 處하는 抱負와 朝鮮의 將來에 對한 經綸은 如何할 것인가. 客觀的으로 朝鮮의 將來가 如何히 되리라 하는 것보다, 一步를 進하여 主觀的으로 朝鮮의 將來를 如何히 할까 하는 것이 注意의 焦點이며 問題의 目標가 아닌가. 一言으로 蔽하면 朝鮮民族의 抱負는 어디까지든지 雄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어디까지든지 遠大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祖先의 東洋 各民族에 對한 傳統의 主義와 方針이었으며 또한 우리 兄弟와 人道와 文化를 愛好하는 遺傳的 天性인가 한다. 回顧하여 보라. 北으로 中國의 隣誼를 尊重히 하고 東으로 日本의 文化를 啓發하여 恒常 東洋平和의 先驅가 되며 또한 東洋文化의 導率이 되었던 것은 時代的 史實이 吾人에게 例證하는 바가 아닌가. 往往히 隋·唐의 劫運과 日·淸의 惡夢이 있었으나 이것도 또한 朝鮮民族의 自主的 殺伐이 아니요, 外敵의 蠻性 發作에 對한 正義的 制裁이며 人道的 防衛였던 것은 正確한 事實이다.

29

우리는 歐美의 自由精神과 科學文明을 愛好하는 바이다. 그러나 隣國을 盜奪하고 人血을 吸取하는 獸性蠻行은 어디까지든지 排斥하고 驅逐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萬一 이러한 獸性蠻習을 그대로 肯定한다면 人類社會는 結局에 強盜의 跋扈에 不堪

할 것이며, 平和의 祭壇은 畢竟은 牧畜의 蹂에 不過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民族的 正義와 人道的 平和의 維持發展에 對하여는 어디까지든지 民族的 義血을 不辭하여야 할 것이며 全國的 動員을 行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設令 日本을 排斥한다 하면 日本의 軍閥一派의 侵略的 軍國主義를 排斥하는 바이며, 또한 赤露를 親近한다 하면 赤露의 平等의 精神을 愛好하는 바가 아닌가. 或은 萬一 東亞의 風雲이 起하고 이리하여 日·美의 衝突이 生할 때에는 美國의 勢力下에서 朝鮮의 解放을 希望하며, 或은 日露·日中の 衝突을 豫期하여 露·中兩國의 援助下에서 民族의 自由를 囑望하나 이것은 決코 朝鮮民族의 傳統的 精神에 背馳될 뿐 아니라 우리의 良心이 또한 不許하는 바이다. 왜 그러나 하면 우리에게 自主의 精神이 있는 까닭이다. 自由는 어디까지든지 自主의 行動이며 自力의 解決이 될 것이다. 決斷코 他力的 援助와 事大的 思想의 支配와 容認을 不許하는 바가 아닌가.

30

勿論 우리는 他民族의 人道的 同情과 正義的 援助를 不辭하는 바이다. 그 뿐만 아니라 現下의 日本으로도 昨非今是의 眞理를 幡然히 悔悟하고 自進하여 朝鮮問題의 人道的 解決을 斷行한다면 우리는 決코 歷史的 感情에 拘泥하여 排斥할 必要가 없을 것이 아닌가. 우리의 主義와 目標은 언제든지 民族的으로 自由·生存·平和의 三大理想에서 그 出發點을 作할 것이요, 決코 憎惡·排斥·侵略的 觀念에 支配될 것은 아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첫째로 民族的 自由를 解決할 것이요, 둘째는 社會的 生存權을 保障할 것이요, 셋째로 世界的 平和에 努力할 것이 아닌가. 이 곧 朝鮮民族의 雄偉한 抱負가 될 것이며 또한 遠大한 經綸이 될 것이다. 遽然히 小強을 持하고 同色民族을 迫害하여 私利를 弄하여 人類의 平和를 攪亂하려 하다가 最後의 破滅을 自招하던 露·獨兩國의 前轍에 鑑하여 또한 이를 見習 模倣하던 日本 文明의 破綻에 證하여 反省自悟할 바가 아닌가.

31

우리가 이러한 抱負와 經綸을 가지고 當來할 世界的 變局에 處하여, 어떠한 修鍊을 加하여 어떠한 準備를 行할 것인가. 두말 할 것도 없이 思想的 修鍊과 民族的 團結이다. 첫째로 우리의 思想界는 複雜한 것이 事實이다. 이를 整理하여 統一하는 데 있어서 調査와 比較와 研究가 必要한 것은 勿論이며, 둘째로 이렇게 整理統一이 된 思想下에서 中心的 團結을 作成하여서 우리의 一頓·一笑와 一動·一靜이 團結의 背景에 依하여 發하며 行하게 되는 것이 現下 急務가 아닌가. 如何한 名俳優라 할지라도

舞臺가 없으면 巧技絶藝를 演出치 못하는 것과 같이 人類는 團體的 背景과 社會的 土臺가 없으면 그 天才와 才能을 發揮치 못할 뿐만 아니라, 如何히 雄偉한 抱負와 遠大한 經綸을 가졌다 할지라도 活川의 路가 絶할 것이며 實現의 日이 無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吾人은 外勢의 波動보다 他力의 援助보다, 中心勢力의 確立과 自體勢力의 解決을 絶叫力說하는 바이다. 要件대 朝鮮問題는 民族自體의 團合이 確立하는 그날로부터 解決될 것을 確信하는 바이다.